

신격호 ‘무경계 경쟁우위’ 재조명

AI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이정표

(롯데 창업주)

세계경영사학회 연구성과 공유
경계를 넘나드는 성장전략 주목
참석자들 국제 공동연구 의견 제시

롯데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세계경영사학회(World Congress of Business History)’에서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조명하는 연구가 발표됐다고 3일 밝혔다.

세계경영사학회는 북미와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영사 연구자들이 4년마다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 대회다.

이번 연구는 오사카경제대학 백인수 교수가 ‘무경계 경쟁우위(Boundless Advantage): 국경을 넘나든 롯데 창업주 신격호의 기업이여정에 대한 동태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지난 2023년 ‘경계 없는 시장 개척자, 롯데 신격호’를 주제로 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경계 경쟁우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재조명했다.



신격호
롯데 창업주

무경계 경쟁우위는 특정 경계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 산업, 조직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축적한 지식과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는 신 창업주의 삶을 청년기, 중년기 초·후반, 노년기 등 네 단계로 구분해 각 시기마다 직면한 경계와 이를 극복한 사례를 분석했다. 문학, 정치, 산업,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를 넘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롯데그룹 성장의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구는 현대 경영인을 위한 시사점도 제시했다. 경계 밖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조직에 접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임자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적극적인 권한 위임과 함께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에는 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 크라우처 교수는 발표 자료 공유를 요청하며, 다른 국가의 초국가적 기업가정신 사례와 비교하는 국제 공동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신격호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은 오늘날 기업가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라며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라면 AI 시대에도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와 미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인터, LNG 밸류체인 고도화

에너지사업 확장·수익성 개선 박차

생산부터 운송·저장·발전까지 연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액화천연가스(LNG) 전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 생산부터 조달·운송, 저장, 발전까지 연결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월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호주 가스전과 광양 LNG터미널, 인천 LNG복합발전소를 잇는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호주 에너지 자회사 세넥스에너지 증산과 광양 제2LNG터미널 준공, 북미산 LNG 장기 도입이 더해지면서 밸류체인 전반의 연계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사업의 성장세는 올해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은 22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6% 증가했다. 미얀마 가스전은 환율 상승과 투자비 회수 효과로 견조한 실적을 거뒀으며 발전·터미널 사업도 인프라 마진 확대와 고객사 계약 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다.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증산 효과도 실적 증가에 힘을 보탰다. 생산능력을 인수 당시의 약 3배로 늘린 증산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가스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5% 늘어난 332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생산정 확보와 지난 5월 수처리시설 완공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량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가스전에서는 기존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4단계 개발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공정률은 44%다. 생산정 시추와 해저 생산설비 제작 등을 거쳐 계획대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LNG 저장과 공급을 담당하는 광양 제2 LNG터미널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공정률은 96%다. 현재 광양 LNG터미널은 저장탱크 6기에 총 93만㎥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2터미널의 20만㎥급 저장탱크 2기가 추가되면 전체 저장용량은 133만㎥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확충된 저장시설을 활용해 LNG 트레이딩과 발전용 공급, 선박용 LNG 병커링 등 터미널 연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북미산 LNG의 장기 조달도 시작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세니에르 에너지와 연간 40만톤의 LNG를 20년간 공급받는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분기에는 LNG 전용선을 통해 첫 계약 물량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발전사업은 인천 LNG복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곳에서 총 3412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세넥스에너지 증산과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광양 제2LNG터미널 준공을 추진하며 가스 생산부터 조달·운송, 저장, 발전까지 아우르는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스트림 자산과 장기 LNG 조달, 전용선, 터미널, 발전을 연결하는 LNG 토털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확장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metro



3일 더 플라자에서 열린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한화M&S) 출범 기념식. 왼쪽부터 이주형·윤재원·이태식·조민호 독립이사, 김동선 미래전략총괄 사장·김형조 대표·박병삼 부사장·조준형 전무·이재원 상무.

/한화M&S

한화M&S 출범… 김동선 ‘독자경영’ 첫 발

오너 3세 사업별 역할분담 마무리 수순
김 사장, 신사업 발굴 등 미래전략 주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사장이 이끄는 테크·라이프 부문 지주사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한화M&S)가 공식 출범했다. 한화그룹 오너 3세의 사업별 역할 분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독자적인 사업 기반을 갖춘 김 사장의 경영 능력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화M&S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지난 1일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에서 테크·라이프 부문을 인적분할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설 지주사에는 테크 부문의 한화비전·한화세미텍·한화모넨텀·한화로보틱스와 라이프 부문의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이 편입됐다.

해외법인과 손자회사를 포함한 소속사는 총 57곳이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은 약 6조원, 자산은 11조3000억원 규모다. 한화비전과 한화갤러리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한화M&S 출범으로 한화그룹 오너 3

세 3형제의 사업별 역할 구분도 한층 뚜렷해졌다. 장남인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방산·조선·해양·에너지·우주항공을, 차남인 김동원 부회장은 금융 부문을 맡고 있다. 삼남인 김동선 사장은 기계·로봇·반도체 장비·유통·호텔·식음료 사업을 아우르는 한화M&S의 미래 전략을 담당한다.

김 사장은 한화M&S 미래전략총괄로 자리를 옮겨 계열사별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 발굴과 계열사 간 협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사업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테크와 라이프 부문을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사장은 그동안 테크·라이프 부문 계열사의 미래비전총괄을 맡아 반도체 장비와 로봇, 식음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한화세미텍의 고대역폭메모리(HBM)용 열압착(TC) 본드 대량 수주와 중동·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화M&S는 계열사별 사업 특성과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문 안팎의 협업을 확대

할 방침이다. 복합기업 구조에 따른 기업 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고 테크·라이프 부문의 투자와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화M&S 관계자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를 테크·라이프 부문에 대한 투자와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부문이 그룹의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김형조 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1994년 한화그룹에 입사한 이후 사업 전략 수립과 사업장 운영 등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21년부터 4년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를 맡았다.

김형조 대표는 “전문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경영 체계를 구축해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한화M&S의 성장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달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계획서를 가결했다. 한화M&S는 오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주담대 늘어날 것”

》1면 ‘5대 은행, 주담대…’서 계속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잔금대출에 한해 일부 완화된 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272가구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입주 물량인 1만6082가구를 웃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잔금대출 실행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잔금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영향이 크다”며 “8월부터 입주 물량이 확대되고 잔금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도 일부 완화된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네스트장은 증시 급락 과정에서 저가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 수요가 유입되며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신용대출 수요도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시장, 韓 증시 장밋빛 전망… “진입 기회”

》1면 ‘역대급 급등…’서 계속

극단적인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외국인들마저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 임원은 “외국인들도 선불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뛰어들지 못한 채 관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빚투(빚을 내 투자)’를 했다가 갚지 못한 결과 발생한 강제 청산과 반대매매도 변동성을 키웠다. 지난달 31일 폭등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9%, 8% 급락했다.

시장에서 보는 한국 증시의 미래는 여전히 장밋빛이다.

신디 박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등의 수급 요인들이 기업 펀더멘털이 견조한 상황에서도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며 “시장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 과정이 진행되고 외국인 매도 압력이 완화된에 따라 한국 증시의 다음 단계 재평가(re-rating)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최근의 레버리지 청산 덕에 가격 부담이 낮아지며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AI) 트레이딩 및 반도체 슈퍼사이클 테마주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